

사육중인 사슴 녹용 철취 신종범죄 '비상'

올 천안·광주에서 피해, 마취제 치사량 사슴폐사

외판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가축의 부산물을 절취하는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Y사슴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유 아무개(52)씨는 아침먹이를 주기 위해 농장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엘크 수사슴들의 머리에 있어야 할 녹용이 감쪽같이 잘려나갔고, 녹용이 잘려진 4마리는 이미 처참하게 죽어있었던 것이다.

밤사이 누군가가 농장에 침입, 녹용 절각 시기를 맞이한 대형사슴들만 골라 강력한 마취제를 사용 녹용을 절취해 간 것이다. 범인은 마취제를 적량 사용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인지,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농장을 지키고 있던 개 5마리도 마취제를 사용, 무참히 살해했다. 축사 내에 있던 사료부대를 열고 고추밭에 깔고 안에서 절취한 녹용을 밖에 있는 공범자가 받아 농장 밖으로 빼돌려간 흔적이 발견돼 범인은 농장사정을 잘 아는 2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 유 아무개씨는 "한밤중에 절취대산 사슴만을 골라 정확히 마취 총을 쏘았고, 적절한 절단부위를 능숙하게 잘라낸 점 등으로 보아 녹용절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절도범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범인들이 절취해간 녹용은 약 100kg으로 소매가 기준 약 7800여 만원 어치에 이른다. 또 폐사된 엘크 사슴들은 이 농장에서 가장 혈통이 뛰어난 고능력



▲처참하게 희생된 사슴



▲범행에 사용된 마취기구들



▲농장을 지키던 개도 모두 희생됐다.



▲지혈을 위해 녹용을 묶었던 끈

사슴들로 두당 1500만원씩 총 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천안경찰서는 즉시 수사관들을 파견해 단서가 될만한 물품들을 수거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고위 수사책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적극적인 범인색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중순경에도 경기도 광주시 소재 송 아무개씨가 경영하고 있는 사슴농장에 절도범들이 침입, 엘크 수사슴 4두를 마취한 후 1마리 분의 녹용을 절취하여 도주했다. 녹용을 절단당한 사슴은 폐사했다.

범인들은 주로 산 속 외딴 곳에 위치한 농장 중 주인이 농장에 기거하지 않

거나 비운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사슴농장 사정을 잘 아는 자들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치밀한 모의 하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회는 녹용 성장기를 틈타 이와 유사한 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판단, 즉각 농장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국 회원농가에 발송했다. 또 신문 및 방송사를 통해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홍보, 농가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월간 한국양육 광고 문의
☎(02)969-6600



녹용 절각이 모두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이다. 농가 냉동고에 보관중인 냉동고 관리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몇해전 아산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냉동고에 보관중인 녹용 전량을 도난당했다. 녹용이 보관되어 있는 냉동고 농장에 있고, 농장에 농장주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범인이 녹용을 싹쓸이해 간 것.

당시 이모씨가 도난당한 금액은 4천만원 상당으로 이후 이씨는 전문 경비업체를 통해 농장 경비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녹용을 보관하는 장소는 농장주가 항상 상주하는 장소로 정해야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CCTV(방범 카메라) 설치나 전문 경비업체에 경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신뢰와 믿음의 명가

▲민주특과 화이트꽃사슴

▲희귀종 화이트엘크

▲위생적인 급수시설

주요 사업

- ◆사슴매매, 분양
- ◆녹용 수매, 납품
- ◆건초, 마취, 절각
- ◆녹용, 한약 달임
- ◆사슴이동, 농장기획

특수동물상담 반달곰 오소리

전원사슴농장

대표 민병철

전화: (043) 211-9108
 핸드폰: 011-461-9108
 무료전화: 080-438-4343
 계좌번호: 농협 415025-52-014636 <예금주:민병철>